

현역 국회의원 영향력 약화... 정치지형 변화 예고

민주당 광주·전남 공천 결산

- (1) 역대급 경선 접음
- (2) 지역위원장 위상 약화
- (3) 선거 유류증 분할

호남을 텃밭으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과거 지역위원회의 입김이 광역·기초의원 경선에서의 당락을 좌우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그 영향력이 최소화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중앙당의 '당원 주권' 방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후보를 낙점해달라고 경선 투표가 권리당원 100% 방

광주 광역의원 경선서 측근 인사들 잇단 고배 순천서는 광역·기초의원 후보 대거 탈당 러시 '당원 주권' 기조 속 지역 내 조직력 승부 갈라

으로 이뤄지면서 지역 기반을 탄탄히 갖춰온 조직력 강한 후보가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된 것이다.

실제 광주 광역의원 경선에서는 지역위원장이자 현역 국회의원이 지원하는 이른바 측근 인사들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특히 전·현직 국회의원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서구갑과 북구갑, 북구을이 대표적이다. 서구갑 1·2선거구에서는 강수훈·오미석 후보가 1차 경선을 통과했다. 이들 모두 송상석 전 국

회의원 측 인사로 분류된다.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인 북구갑의 경우 1차 경선이 소선거구로 치러졌는데, 1·2·3선거구 모두 강기정 광주시장과 조오섭 전 국회의원 측 인사로 분류되는 안병환·김건안·이숙희 후보가 1차 경선을 통과, 본선 무대로 직행하게 됐다. 2차 경선에서만 현 지역위원회 측 인사인 박수민 후보가 공천장을 받았다.

북구을에서는 4선거구 조석호, 5선거구 주순일 후보 모두 오랜 지역 활동과 탄탄한 조직을 기반

으로 경선을 통과했다. 두 후보 모두 현 지역위원회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광산구 1·2·3선거구는 박규택 의원이 선거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지지 선언한 3명의 후보가 모두 공천받았다.

전남에서는 순천에서 지역위원장과 민주당 후보들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단순 공천 불만을 넘어 지역 조직 전체의 균열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실제 지역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운 후보 현직 광역·기초의원이 대거 탈당을 하며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재선의원 뿐만 아니라 3·4선 중진까지 탈당 대열에 합류한 상황이다.

이처럼 각 선거구에서 다양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용하면서 기존 현역 국회의원 중심의 공천 체계가 상대적으로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결과는 당내 공천 과정에 현역 의원의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기조가 깔린 데다 당원 주권에 기반한 권리당원 100% 방식의 투표가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가 현역 국회의원의 프리미엄을 가로막고, 장기간 공을 들여 구축한 조직력이 경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향후 정치 지형 변화를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 광역·기초의원들은 지역 조직의 핵심 축인 만큼 이들의 영향력이 2년 뒤 총선 구도에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경선은 현역 국회의원이 2년간 조직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현직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총선과 지역 내 정치 지형 변화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행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신안을 찾아 섬 교통 체계 전반을 겨냥한 정책을 제시하며 이동권 공약을 구체화했다.

민행배 후보, 신안서 '섬교통 5대 혁신' 제시

공영제 여객선 탑승 점검... "필수 해상교통 국가 책임 강화"

민행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신안을 찾아 섬 교통 체계 전반을 겨냥한 정책을 제시하며 이동권 공약을 구체화했다.

민 후보는 13일 신안군 중도 앞바위 여객선터미널에서 공영제 여객선 '슬로시티호'에 탑승해 자은도로 이동하며 항로 운영 실태와 주민 불편을 직접 점검했다. 현

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섬 교통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후보는 "전남은 섬이 많은 지역으로, 배편이 끊기면 통학과 통원은 물론 생필품 운송과 돌봄까지 영향을 받는다"며 "섬이 동권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정주 여건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제시한 '섬교통 5대 혁신 정책'은

해상교통을 공공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필수 항로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운항 안전성을 책임지는 해상교통 공공책임제 도입을 비롯해 노후 선박 교체와 항로 안전성 강화,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여객선 체계 구축, 수요응답형 호출형 여객선 도입, 교통·의료·돌봄·물류를 연계한 섬 생활권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민 후보는 "적자 보전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섬의 삶 자체를 유지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 책임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현장 점검 이후 자은도 '1004무지업과크'에서는 주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시민 참여 기반 행정 구상을 밝혔다. 주민들과 직접 대면해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 구조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민 후보는 "섬이 많다는 조건은 제약이 아니라 해상교통과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기반"이라며 "섬 교통 혁신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담양 민주 경선후보 3인 '정책 협력체' 구성

박종원·이규현·이재중 '미담' 결성... 정책 중심 경쟁 전환

박종원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와 경선 후보였던 이규현·이재중 후보가 정책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 후보는 1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프로젝트 모임 '미담(미래담양)'을 출범시키고 정책 중심 선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선 경쟁 후보들이 공동 정책 플랫폼을 구성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원팀을 넘어 군민의 팀으로 나아가겠다"며 "이제경 정부와 발맞춰 지역 발전을 이끌 정책선거의 출발점을 담양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담'은 선거 연대를 넘어 정책 협력에 초점을 맞춘 구조다. 각 후보가 제시한 핵심 공약을 결합해 균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박종원 후보는 이규현 전남도위원이 제안한 '담양형 기본소득'과 이재중 전 청와대 행정관의 '인공지능 데이터 생산도시' 구상을 접목해 지역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 후보는 반복돼 온 지역 선거의 갈등 구조를 바꾸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호남 정치가 분열과 대립으로 비만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방정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 기반의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업정책 전문가인 조창완 전 전남발전연구원 부원장도 참석해 정책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하는 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13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자 등록 접수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최기하 기자 bluesky@gwangnam.co.kr

김병내 "남구, 통합특별시 핵심 거점 육성"

광주~나주 광역철도 호천역 경우 등 공약

더불어민주당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후보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남구를 광주·전남 남부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병내 후보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남구 도약의 마중물로 삼겠다"며 "이미 수립한 행정통합 대비 기본 전략을 바탕으로, 남구 발전 견인 7대 핵심 사업이 통합특별시장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주~나주 광역철도의 호천역 경우와 광주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건설사업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역별 특화 전략으로 대촌권에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와 연계한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원도심은 백운광장 로컬푸드 직매장과 청년복합플랫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암·백운·대촌을 잇는 '성장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기반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공약으로는 소상공인 특별보증 확대와 남구동행카드 추가 발행,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개설 등을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에달이온' 안부 전화 사업과 하이로 이동복지관,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 전원택시,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효자보안 안전 돌봄 등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남오 "유언비어 유포, 강력 대응하겠다"

불법 행위 법적 조치 경고

이남오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사진)가 13일 "최근 지역사회에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조직적으로 퍼지고 있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처음에는 당시 이후 특정 인사를 특정 직위에 내정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이야기에서 시작해 배우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인격살상성 음해는 선거 공세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상대 후보는

언론과 군민 앞에서 네거티브 없는 클린선거를 약속해 왔다"며 "확인되는 불법 행위 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이은형 조국혁신당 예비후보와 이형섭 무소속 후보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유언비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형섭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도 "이남오 후보가 주장하는 유언비어는 알지도 못한다. 무소속 후보를 알리기에다 빼들었다"며 "공정하게 공약으로 경쟁하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카드뉴스

'사전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도장 인쇄날인, 문제없다."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8.)

합헌 판단 이유 1: "사전투표가 선거일 투표와 비교하여 위조 투표용지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합헌 판단 이유 2: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은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것"

투표용지 발급기 통합 : 봉인된 상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

후보자 선정 참관인의 사전투표상황 참관 및 사전투표함 이송과정 동행

사전투표용지 발급 교부수와 실물 투표지 비교로 선거 부정 여부 검증 가능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한 사전투표소에서는 방문자수 - 대기시간 예측 곤란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사인을 날인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선거인의 투표 대기시간 단축 등 투표편의 제고를 위한 것

*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관련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